

## 말하는 동상

어린 소녀, 빈 의자. 그녀의 두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호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단호합니다; 그녀는 확고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침묵을 깨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군인들을 “몸으로 위로” 하는 것이 목적인 여성들인 “위안부”에 대한 아시아 태평양 전쟁 (1931-1945) 동안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와 함께 앉아 그녀가 여러분에게 말하려는 것을 들어보실래요?

그녀가 17살이었을 때, 한국에서 온 김순덕 씨는 일본인 간호사들의 광고에 넘어갔고, 그 후 “위안소”에서 몇 년을 보낸 후 1940년에 탈출했습니다. 자바 출신의 **Mardiyem** 씨는 13살 때 보르네오에서 연극 공연에 참여할 기회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녀 역시 결국 속아 “위안소”로 끌려갔습니다. 대만 출신의 **Tsai Fang Mei** 씨 역시 일본군이 그녀를 납치했을 때 13살의 나이였습니다. 낮에는 요리와 청소로 막사에서 일을 하였고, 밤에는 화련의 동굴에서 일본군에게 위안부로 이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 Stefan Hopf

평화의 소녀상은 한국의 예술가 부부인 김서경, 김은성 작가에 의해 디자인되었습니다.

**Shen Chung Ah ma** 씨는 그녀의 고통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저는 종종 제가 성 노예가 된 날이면 제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녀는 종종 학대에서 살아남은 친구와 함께 울기 위해 산에 갔습니다. 아무도 그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피해 여성의 수는 확인하기 어려운데, 특히 일본 정부가 전후 부인 정책의 일환으로 대부분의 관련 문서를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히로시마 대 사학과의 **Yuki Tanaka** 교수는 “위안부” 여성의 수가 8만에서 10만 명이 되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이는 한 명의 “위안부”가 평균 35명의 군인을 “위로” 해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 오늘날까지도 일본의 우익 보수 진영은 “위안부”가 강제 없이 자발적으로 “위안소”에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 여성의 절반 이상이 “위안부”에 끌려갈 당시에 미성년자였습니다. **Shen Chung Ah Ma** 씨는 납치 당시 너무 어렸기 때문에 성관계가 임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유산을 경험하거나 낙태를 해야 했지만, 임신이 더 이상의 성폭력을 막아주지는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많은 “위안부”가 총에 맞았고, 생존자들은 그들이 각자의 공동체에 의해 단절될 것을 두려워하여 침묵을 지켰습니다.

대한민국에 뿌리내린 초국가적 운동이 형성된 것은 1990년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를 요구했고, 전쟁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한국 협의회). 1991년, 전 “위안부” 피해자였던 **김학순** 씨의 텔레비전 연설은 많은 다른 피해자들에게 그들의 증언을 공개적으로 하도록 자극했습니다. 긴 침묵이 마침내 깨지게 되었습니다.

1992년 이래로, 한국 협의회에 의해 조직된 시위는 매주 수요일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어났고, 그것들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의 목표는 일본군에 의해 야기된 “위안부”와 그들의 피해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입니다.



Pudmaker / 2012년 개천절 수요일시위 / CC-BY-SA-3.0

서울의 평화의 소녀상은 매주 수요일마다 시위자들이 모이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바꿀 수 없고, 목소리는 억누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억압된 목소리들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심지어 특히 정부가 우리의 과정을 방해하려 할 때도, 세워져 있는 모든 평화의 소녀상을 제거하려고 할 때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9월 베를린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 이후, 그것이 남아있어도 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외교 정책으로부터의 압력은 이미 독일의 다른 공공장소에 더 이상의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라이프치히에서도, 우리는 영구적인 청동 소녀상을 세우는 데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오늘 단지 여러분의 옆에 앉아,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할 뿐입니다. 그녀를 잊지 말아주세요.

- This translation is based on an older version of the German text, which has since been revised. We apologize for any inconvenience caused. -

Korea-Verband e.V. (n.d.). *Biographien von Zeitzeuginnen*. <https://www.koreaverband.de/trostrfrauen/zeitzeuginnen/> (Zugriff am 14.05.2022).

Han, N. J.-H. (Hrs.) (2019). *Überlebende brechen das Schweigen: Katalog anlässlich der Dauerausstellung Die „Trostrfrauen“ und der gemeinsame Kampf gegen sexualisierte Gewalt, im Rahmen des Museumsprojekts MuEon DaEon*, Berlin: Korea-Verband e.V.

Mladenova, D. (2022). *The Statue of Peace in Berlin: How the Nationalist Reading of Japan's Wartime "Comfort Women" Backfired*. 20(4), <https://apjif.org/2022/4/Mladenova.html>.

Nishino, R. (2020). Forcible Mobilization. In R. Nishino, P. Kim & A. Onozawa (Hrs.), *Denying the comfort women: The Japanese state's assault on historical truth*, 40–63. New York & London: Taylor & Francis, <https://doi.org/10.4324/9781315170015>.

Tanaka, Y. (2019). War, Rape and Patriarchy: The Japanese Experience. In G. Zipfel, R. Mühlhäuser, & K. Campbell (Hrs.), *In Plain Sight: Sexual Violence in Armed Conflict*, 30–51. New Delhi: Zubaan Academi.

Yoshimi, Y. (2003). Das Problem der ‚Trostrfrauen‘. In S. Richter & W. Höpken (Hrs.), *Vergangenheit im Gesellschaftskonflikt. Ein Historikerstreit in Japan* (97–117). Köln: Böhlau.